탁하여 東北지구 조선민족에 대해 간섭하였지만 국민당이 중국대륙에서 쫓겨난 후 동북지구 조선민족은 명실공히 해방되고 중국공민으로 중국역사상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사에서는 중국대륙에서 전개한 抗日무장투쟁을 해외동포의 抗日투쟁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이는 제법상 전면적이 못된다. 마땅히 이 시기 역사는 조선 反日義兵무장투쟁의 연장이며 그의 심화발전으로 한반도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이다.

抗日무장투쟁은 오로지 중국대륙에서 해내외(海內外) 3천만 조선민족이 진행한 抗日민족해방투쟁으로 <中國朝鮮民族史>는 역사관점을 내세우고 서술할 뿐 아니라 곧바로 이 시기 한국사의 主流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 또는 中國朝鮮民族史의 抗日民族武裝鬪爭史은 공동재부(財富)로서 實事求是적으로 인색(吝嗇)함이 없이 서술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左翼이 진행한 抗日무장투쟁은 北에서 右翼이 진행한 抗日무장투쟁은 南에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제각기 서술된다면 그 어찌 공동재부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實事求是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역사가의 임무는 우리 後代에게 편견없는 사실 그대로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집필자 : 高永一, 廉昌俊, 李松德)

C일. 사3

**중국抗日戰爭과 조선민족**

**-1910~1952년 조선민족통사**

지은이 | 고영일 · 주필 외
윤병묵 강창준 이송덕 남희풍 김창국 이호범
펴낸이 | 마원자
펴낸곳 | 도서출판 백암
편집 디자인 변영은
Baek Am Publishing Co.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219번지
전화 02-455-6197 / 팩스 02-452-6918
펴낸날 | 2002년 8월 31일 제 1판 1쇄
등록 | 제 10-2305호
© BAEK AM Press Co.2002, Printed in Korea
ISBN 89-7625-097-4 03910

값 15,000원

* 저자와의 협의 하에 인지를 생략합니다.
* 파본이나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차례


**총론 – 高句麗 后孫의 발자취와 延邊개간민 문제 · 15**

(1) 唐代 인물전 *17*

(2) 金代 인물전 *20*

(3) 元明代 인물전 *22*

(4) 淸代 인물전 *24*

(5) 淸朝의 延邊개간민 문제 처리와 東北농업사에서의 혁신– 수전개발 *32*

(6) 日帝의《間島案》을 반대하는 延邊인민과 愛國官員 吳祿貞 *47*

(7) 安重根의사의 할빈역에서의 抗日거사와 中韓공동抗日의 대중성 형성 *52*

**제1장 開墾民사회 경제사 · 55**

제1절 고구려 후손 촌락과 朴氏村 57

1. 고구려 후손 촌락 *57*

2. 朴氏村 *60*

제2절 이주민의 개발 63

1.奉系軍閥의 정책 *63*

2. 미중유의 개간민 이주 고조 *73*

3. 日帝의 이주민 정책 *79*

제3절 조선인사회 경제상황 93

1. 농촌경제와 개간민 처지 *93*

2. 민족 공상업과 일제의 약탈정책 *96*



# 차례



**제2장 민족교육사와 抗日투쟁 · 105**

제1절 근대항일 학교교육의 서막(~1910년) 107

제2절 1910~1920년의 민족사립학교와 抗日투쟁 114

제3절 일제의 노화(奴化)교육과 抗日학교(1931~1945. 8. 15) 133

제4절 해방 후 민족교육(1945. 8. 15~1952. 9. 3) 142

**제3장 민족종교사와 抗日투쟁 · 151**

제1절 민족종교와 抗日투쟁 155

제2절 천주교, 기독교와 抗日투쟁 165

**제4장 문화예술 종합사와 抗日투쟁 · 173**

제1절 문학활동과 抗日활동 175

1. 1920년 이전의 문학 *175*

2. 1920~1931년의 문학 *178*

3. 1931~1945년의 문학 *180*

4. 1945~1949년의 문학 *182*

5. 1949~1952년의 문학 *183*

제2절 예술활동과 抗日활동 184

1. 음악 *184*

2. 연극 *192*

3. 무용 *195*

4. 미술 *197*

제3절 신문 간행물 202
1. 20년대 民聲報의 抗日투쟁 *202*
2. 30년대 신문 간행물 *205*
3. 광복 후 延邊에서 발간된 신문 *208*
4. 東北朝鮮人民報 출현 *211*
5. 광복 후 조선문 잡지 *211*
6. 조선말 방송 *212*

제4절 민족 醫學 214

제5절 체육 217
1. 9 · 18 사변 전 체육 *217*
2. 1931~1940년대 체육 *218*
3. 광복 직후 체육 *220*
4. 건국 후 대중적 체육운동의 전개 *221*

제6절 개혁 개방 후 문화, 민족생활이 새 면모 222

**제5장 동북抗日전쟁과 조선민족 · 231**

제1절 민족주의 단체의 抗日무장투쟁 233
1. 반일단체의 "3 · 13" 抗日시위 운동 *233*
2. 반일단체의 抗日무장투쟁-봉오동전투, 청산리전역 *238*

제2절 동북抗日전쟁과 조선민족 262
1. 東北에서의 朝共, 中共조직의 활동 *262*
2. 《9 · 18》사변 후 조선족에 대한 일제의 파쇼통치에 대한 반항 *268*
3. 抗日유격대와 抗日유격근거지 창건 *276*
4. 《7 · 7》사변 전 日帝의 《숙청계획》에 대한 분쇄 *318*

제3절 《祖國光復會》의 10대 강령 358
1. 미혼진회의 *358*
2. 조국광복회의 건립과 10대 강령 *358*

제4절 抗日전쟁을 견지하는 조선인민의 무장투쟁 364
1. 7 · 7 사변 후 日帝의 파쇼통치를 반대하는 투쟁 *364*
2. 中國의 8년 抗日전쟁시기 東北抗日戰爭과 조선인민 *365*
3. 抗日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쟁취한 조선인민의 무장투쟁 *380*

**제6장 중국 關內 中韓 통일전선과 조선애국자들의 抗日무장투쟁 · 395**

제1절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건립 397

제2절 黃浦軍官 학교와 廣州起義의 건립 400

차례

# 차례


1. 黃浦軍官 학교의 조선인 *400*

2. 1927년 廣州起義의 조선인 敎導團 *401*

제3절 尹奉吉義士의 上海抗日거사,
洛陽군관학교 분교 건립, 光復軍 건립 405

1. 尹奉吉義士의 上海抗日거사, 洛陽군관학교 분교 건립 *405*

2. 臨政의 實態 *407*

3. 重慶에서 臨政의 光復軍 건립과 抗日무장투쟁의 전개 *408*

제4절 南京 조선혁명간부학교, 武漢保衛戰 反日단체의 분열 410

1. 南京조선혁명간부학교 *410*

2. 武漢保衛戰 *411*

3. 反日단체의 분열 *412*

제5절 中共抗日근거지에서 애국자들의 抗日무장투쟁의 전개 415

1. 中共의 國際통일전선 정책과 조선민족 *415*

2. 朝鮮義勇軍, 朝鮮獨立同盟의 건립과 抗日무장투쟁 *416*

제6절 관내 抗日무장투쟁 중의 중요 인물들 419

1. 中共계통 인물 *419*

2. 國民黨계통 인물 *429*



# 차례



**제7장 "8 · 15(9 · 3)" 후 東北조선민족의 새역사 개시 · 435**

제1절 延安조선의용군의 東北진출과 遼寧, 吉林, 黑龍江 지구에서 國民黨과 결탁한 臨政과의 결전 437

제2절 延邊의 새역사 개시 441

제3절 吉林 民主聯盟의 활동 448

제4절 黑龍江省내 조선민족의공헌 451

**제8장 中國역사상 延邊朝鮮族自治州 건립 · 459**

제1절 "抗美援朝"와 국내조선민족에 대한 中共의 전략적 방침 461

제2절 中國역사상 延邊朝鮮族自治州 건립의 심원한 역사적 의의 465

**제9장 조선인민 抗日무장투쟁사로부터 본 韓半島 南北역사에 대한 결론 · 469**

# 제1절 문학활동과 抗日활동

조선민족문학은 우리 민족人民들의 生活투쟁과 역사를 토대로 하여 古代, 中世의 민족문학전통을 계승하고 고유한 민족적 정기와 향기를 무르익혀 왔다.

## 1. 1920년 이전의 문학

이주초기 그 절대부분 사람들은 극빈한 농민들이었다. 19세기 말엽까지는 서사문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다만 구전문학과 계몽가요가 성행하였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민족문화계몽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사문학이 대두하였다. 이 시기 새로운 성격적 특징은 우선 사상내용이 반제반봉건의 사상, 중세기적인 권위와 관습을 반대하고《民權옹호》와《自由平等》,《文明개화》를 주장한 자산계급민주주의사상을 기본으로 한 데 있다. 그리고 이 시기 적지 않은 작가들은 言文一致운동의 고무를 받으면서 어려운 한문식 표현과 한문투를 피면하고 우리 민족의 생활적인 언어와 일상 구두어를 쓰는 데 큰 관심을 돌렸다. 따라서 이 시기 문학은 사실주의 기치를 추켜드는 데서 전진을 보게 되었다.

이 시기에 창가, 자유시, 신소설, 신파극과 같이 새로운 문학양식이 산생되었으며 한문시, 전기문학, 수필 그리고 민요, 구전설화들이 계속 발전하였다.

김택영, 신정 등의 한문시, 신채호의자유시, 소설, 정론과 문예성을 띤 산문작품이 많이 나왔다.

金澤榮(1850~1927)

김택영은 17세에 성균관 초시에 입격하여 42세에는 내각기록국서적국 中籍과정에 승진하여 조선의 국가역사문헌편찬에 힘썼다.

1905년 9월 그는 굴욕적인《을사5조약》의 체결을 앞두고 中國의 上海로 망명해와서 梁啓超, 嚴復 등 계몽사상가들과 접촉하였다. 1911년 10월, 辛亥革命이 승리하자 民主공화국의 새 정치, 새 세계를 지향하여 중국의 국적에 입적하였다. 반일민족독립운동가로서의 그는《4 · 12》정변으로 하여 北伐전쟁이 좌절당하자 크게 실망하였다.

김택영은 우리 민족의 탁월한 詩人이다. 嚴復은《그의 시재는 李白, 杜甫와 흡사하고 公의 사부는 추양과 매승을 따라잡았노라》고 하였다. 무려 1100여수의 한시를 창작하였다. 500여편의 散文詩도 썼으며 장편전기《안중근전》은 그의 역작이다.

김택영은 조선민족 한시문학의 최후를 장식한 文豪이다.

申檉(1879~1922) 원명 : 申圭植

중국민주주의 혁명의 선구자인 손중산 선생이 창립한《중국동맹회》에 제일 먼저 참가한 조선족은 신정(申檉)이다.

어릴 적부터 일제를 한없이 증오해 온 그는 20살에 서울 중문(中文)학교에 입학하여 3년간 공부하였고 뒤이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참위(위급의 최하급)로 되었다.

1905년 11월에 일제는《을사보호조약》을 조선에 강요함으로써 조선의모든 외교권을 빼앗았다. 이에 극도로 분노한 신규식은 일제와의 혈전을 획책하다가 실패하게 되자 자결하는 것으로써 일제에 항의하려고 독약을 먹었다. 집식구들에 의해 제때에 구급되었지만 오른쪽 눈이 잘못되었다. 하여 그는《흘겨본다》는



《예(睨)》자를 빌어 자신의 별호를《예관》이라 짓고 수많은 반일 문언문한시를 지었다.

1910년 8월 29일에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자 신규식은 반일구국의 길을 찾아 1911년 봄에 중국 상해에 가서 자기의 이름을 신정이라고 고친 후 손중산이 령도하는 중국동맹회에 가입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청조를 뒤엎는 신해혁명에 참가하였다. 그는 동맹회에 참가한 첫 조선족이며 신해혁명에 참가한 유일한 조선족이다. 그는《보검》,《손중산대통령을 축하하노라》와 같은 많은 시를 써서 신해혁명을 구가하고 공화제도를 노래하였다.

신정은 반일혁명가로서, 시인으로 중국과 조선, 일본 등 여러나라에 소문이 났다. 1919년 4월 상해에서《대한민국림시정부》가 설 때 신정은 법무총장으로 추대되었다. 1920년 10월에 그는 한문문언문 2만여자로 된 자신의 정론문《통언》을 상해의《진단주간》에 발표하였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타승할 수 있고 동방약소민족이 서방렬강을 타승할 수 있다는 정견을 내놓은 이 론문은 중국의 정치 령역과 학술분야를 놀래웠다. 1921년 10월, 중국민주주의혁명의 선구자인 손중산은 신정을 접견하고 그를《노동지》(老同志)라고 하면서 높은 평가를 주었다.

1922년에 광동군벌 진형명은 영국제국주의와 결탁하여 반혁명 폭란을 일으켰다.《비상대통령》으로 있던 손중산이 광주를 떠나 상해를 거쳐 해외로 망명하자 이에 크나큰 정신적 타격을 받은 신정은 앓아눕게 되었다. 그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단식을 하다가 25일만인 1922년 8월 5일에 43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신정이 별세한 17년만인 1939년에 중국의 문인들은 신정 탄생 60돌에 즈음하여 1910년부터 1922년까지의 그의 한시 160여수를 묶은 시집《아목루(兒目淚)》를 중경에서 출판하였다. 이 시집은 나라를 잃은 나그네의 피눈물로 엮어진 성토서였고 또한 광명과 진리를 찾기 위하여 분투한 저자의 심혈의 결정체였다.

## 2. 1920~1931년의 문학

1920년대의 역사적 현실은 이 시기 문학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하였는바 무산계급문학이 대두하였다.

이 시기에도 혁명가요를 위시한 시가창작이 선행시기처럼 가장 활약적이었고 그 영향력도 컸다. 혁명가요는 일부시인과 작가들에 의하여도 씌여졌지만 거개는 사회적, 혁명적 활동 중에서 집단적으로 창작되었다. 이를테면 1926년 전후 南滿화전《5 · 1》학교에만 해도 백여수의 혁명가요가 창작되어 널리 불리워졌다고 한다.

의회주도권이 왔다. 붉은 주권이 왔다. 무산대중의 피값에 의회주권이 왔다.
공산사회를 만들어 혁명투쟁에 힘쓰고 세계혁명을 위하여 프롤레타리아 싸운다
……
만세만세 부르며 붉은 10월 성공에 의회주권 세우려 마지막까지 싸우자.

이는《의회주권가》의 몇 대목이다.

이 시기에 자유시와 漢文詩, 時調의 창작도 퍽 활발스럽게 진행되었다.

동무야, 아느냐 조선의 마음은
겨레의 마음을 한데 태워서
올바로 붉어진 자유의 품에
님을 비추는《거울을 삼노니》
《때》의 사조가 한없이 흘러서
사람의 마음을 낡는다 해도
님의 마음은 펴일길 없으니
幻影을 헤치고 眞을 찾아서
《바람》의 푸른 기를 높이 세우자.

이는 서정시《朝鮮心》(백안산인, 1928年)의 한 대목이다. 이 시기에 이 밖에도《燕歌舞》(1928年),《님 찾은 마음》(리월촌인, 1930年) 등은 고국을 그리는 겨레의 숭고한 감정과 민족적 자주독립의 숙원을 쓴 시편들이다.



이 시기 산문, 소설, 연극도 적지 않게 나왔는데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이 시기 주요한 文人은 申采浩이다.

### 申采浩(1880~1936년)

조선 인민이 낳은 저명한 文學家, 歷史家, 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이다.

20세 때에는 당시의 권문세가이며 개화적인 대학자 陽園 申箕善의 추천으로 成均館에 들어가 박사벼슬을 지냈다. 국내에서《황성신문》등의 논설원, 주필, 비밀결사인《신민회》,《청년학우회》등의 지도자, 조직자사업을 담당하면서 많은 史論을 발표하였다. 1915年에 中國 北京에 이르렀다.

1919年 4月에는 上海에서 조선임시정부의 요직에도 있었다. 신채호는 북경에 거주한 10년래에 民族文化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의 수요로부터 많은 정론과 수필들을 발표했다.

신채호의 문학창작 중에서 시작품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자유시《한나라 생각》,《너의 것》,《나비를 보고》시조《61일 戒壇의 懷古》, 한문시《백두산 길에서》등 40여편 만이 전해지고 있다.

青山에 노는 나비
그 등에 올라앉아
훨훨훨 날아가면
어데를 못가랴만
동풍이 너무 이악하니
빈 꿈에 부치리라

이것은 고향을 사무치게 그리며 고향길을 막아놓는 원수 일제에 대한 분노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유시《나비를 보고》의 한 단락이다.

산문, 소설 창작은 신채호의 문학활동 중에서 중요한 성과로 되고 있다.

그의 정론과 수필은 잡감, 단평, 문학평론, 서한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단편소설《꿈하늘》(1916년),《용과 용의 대견전》은 소설창작에서 대표작으로 인정된다. 불합리한 현실과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人民大衆의 투쟁과 념원을 浪漫주의 창작방법으로 반영한 작품들은 그의 창작생애와 조선민족의 진보적浪漫주의 문학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3. 1931~1945년의 문학

이 시기 문학은 항일무장투쟁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장성하는 사상미학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발랄하게 발전하였다.

이 시기의 문학활동과 창작은 광활한 지역에서 벌어졌다. 동북 항일유격구, 관내 조선의용군과 광복군, 적점령구 등 장르면에서도 항일가요와 극창작, 시, 소설 등 다양한 형식이 나왔다.

시인 尹東柱, 李旭, 尹海榮, 소설가 金昌杰 등은 적점령구에서 창작활동을 벌인 대표적 작가이다.

항일가요와 극문학에 대해서는 음악, 연극분야에서 따로 서술한다.

### 소설가 金昌杰

金昌杰(1911~1991)은 병동소학교를 마치고 용정의 恩眞中學, 大成中學에서 공부하다 가정곤란으로 중퇴하고 5~6년간 방랑생활도 하였다. 일찍 혁명조직과 접촉한 그는 건국후에는 유일한 조선민족대학인 연변대학에서 문학부 주임으로 교편을 잡았었다.

그는 20여편의 단편소설과 수십편의 수필, 시,평론 등을 발표하였는데《암야》,《무빈골 전설》,《수난의 한토막》,《두번째 고향》,《락제》 등은 그의 대표적 작품이다.



김창걸은《만선일보》에서 일제의 어용문인으로 나설 것을 강요할 때 1944년에 단호히 붓을 꺾었다.

### 抗日시인 尹東柱

尹東柱(1917~1945)는 일제의 민족적 기시와 탄압이 혹심한 처경에서도 시종 민족의 독립과 自由를 위하여 삶을 바친 재능있는 抗日시인이며 인도주의 시인이다. 길림성 용정시 명돈촌의 한 교원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용정의 은진중학, 광명중학을 다니었고 1942年 4月에는 日本 도꾜의 立敎대학에, 10月에는 교도의 同志社대학 영문과에서 공부하였다.

1943년 7월 19일, 민족독립사상을 선양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려 시도한 것이 죄가 되어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오매에도 그리던 민족의 새아침을 보지 못하고 1945년 2월 16일, 28세를 일기로 장렬하게 희생되었다.

그는 용정 광명중학시절에 동시《병아리》,《비자루》 등을 발표했다. 그의 창작생활은 1934년 첫 서정시《삶과 죽음》을 쓴 때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는 많은 시를 썼지만 유고집에《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110여수가 수록된 것이 있다.

윤동주 시집(위)
윤동주의 묘지(아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는《서시》의 전문이다. 고통 속의 삶, 삶 속의 고통을 그리면서 우리 민족의 절망과 희망을 자연의 표상과 조화시켜 표현하고 있다.

## 4. 1945~ 1949년의 문학

이 시기 가사를 망라한 시문학과 극문학이 두드러진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욱, 윤해영, 채택용, 김예삼, 설인, 김태희, 김순기, 임효원 등이 시대와 발걸음을 같이 하였다. 해방된 인민들의 민족적 감격과 희열, 제 3차 국내혁명전쟁 등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가을 바람이 높은 하늘 사이로 새여드는 곳
가을절기는 대지를 뒤엎는다.
……
평생에 가져보지 못하던 이 밭 이 논배미가
내 땅이 될 줄이야 내 땅이 될 줄이야.
갈퀴같은 손아귀에 낫들어 가을하리
피줄서린 팔뚝을 크게 내저으며

이는 김진의 서정시《토지얻은 이 기쁨 쏟아쏟아》에서의 몇 대목이다.

국내해방전쟁이 승리한 후 연길 일대에서 장막극《호가장전투》,《북경의 밤》, 목단강 구역에서 장막극《밀림의 고백》,《너?! 이놈》 같은 극작품들이 창작공연되었다. 이 시기 산문, 단편소설로는《담배국》,《전선》,《고백》 등이 나왔다. 김학철의《담배국》은 당시 소설창작에서의 대표작이다.



## 5. 1949년~1952년의 문학

건국 후 새로운 민족문학건설의 절박한 수요에 따라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던 조선족 작가들이 중국 조선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연변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건국 전 흑룡강성의 목단강, 할빈지대에서 문학활동을 벌리던 金禮三, 金太熙, 崔壽峰, 李弘奎, 任曉遠, 崔賢淑, 길림 통화지대의 白南杓, 崔靜淵, 태항산에서의 金學鐵, 鄭吉雲 등이다. 연길시와 연변의 기타 지역에서 정열을 몰부어온 李旭, 金昌杰, 玄南極, 馬相郁, 雪人(李成徽), 金淳基, 洪聖道, 金昌暢 등 문예일군의 대오가 충실해졌다.

1950年 1月 15日에 연변문예연구회가 결성되고 그 산하에 文學, 연극, 음악, 무용, 미술 등 5개조가 설치되었다. 1951年 4月 23日에는 연변문예연구회를 해소하고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연변문예》지를 발간하였다. 1953年 7月에는《연변문연》이 성립되었다.

건국초 조국이란 주제는 조선족 시문학의 궁전에 인입되었다. 임효원의 서정시《새 국기 밑에서》, 서헌의 서정시《영예는 조국에》 등, 김예삼의《공산당의 붉은 기발》, 김창석의《7월의 붉은기 인민의 자랑으로 휘날려라》 등, 그리고 시편으로는 임효원의《이 손에 총을 주소》, 김창석의《불길은 일었다》, 김순기의《조선의 싸움터로》 등이다.

단편소설에서 새생활에 대한 희열과 감격, 나라의 주인으로 된 기쁨, 애국정신의 열정 등을 반영한《새로운 마을》(김창걸),《소골령》(렴호열),《새집드는 날》(김학철) 등이다.

# 제2절 예술활동과 抗日활동

## 1. 음악

(1) 우리 민족의 음악예술은 민요와 기악 등 민간음악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中國의 조선민요구역은 대체상 3개로 나누어졌다. 豆滿江 연안인 연변 一帶와 黑龍江, 牡丹江 일대에는 咸鏡道 민요, 吉林省의 長春 지구와 吉林地區 그리고 흑룡강성의 대부분 지구에는 南道민요, 鴨綠江 연안의 요녕일대에는 平安道 민요가 분포되었다. 이 3구역의 형성은 역사적, 지리적 원인에 의한 것이다.

1920年 좌우에는 당시 우리 민족의 전문예술단체가 없는 정황에서 中學校는 주요한 文化진지였으며 음악활동의 주요한 진지였다. 재능있는 音樂人材들이 교편을 잡고 있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기 —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계수나무 한 그루 토끼 한 마리 — 구름나라 지나선 또 어데로 가나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 머나먼 곳엔 그빛 빛나고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 별들은 등대처럼 밝게 비치라

(윤극영 작사, 작곡)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배워야 한다는 자각과 배운자일수록 직분을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킨 노래를 지은 윤극영은 日本 도꾜의 東洋音樂學校를 졸업하였는데 그는 1926년 용정에 와서 東興, 光明 등 중학교에서 음악교원을 하였고 할빈에서 한때 예술단도 조직하였다. 중국에 와서 15년 동안 있다가 한국으로 갔는데 그 사이 15년 동안에 많은 음악일군을 양성하고《윤극영 100곡집》(등사본)도 펴내었다.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용드레 우물가에 밤새소리 들릴 때
뜻깊은 용문교에 달빛 고이 비친다
이역하늘 바라보며 활을 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용주사 저녁종이 비암산에 울릴 때
사나이 굳은 마음 길이 새겨 두었네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윤해영 작사)

《선구자의 노래》(원래는 용정의 노래였음)의 작곡자 조두남은 1933年 흑룡강서 목단강에 왔다. 그는 流浪극단을 꾸리고 가극, 경가극, 기악조곡, 가요들을 창

작하여 공연하였다. 그가 지은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싸운 先驅者를 노래한 가요는 지금도 연변만이 아니라 중국의 조선사람지구에서 널리 불리운다.

문하연은 1932년에 日本 도꾜의 日本音樂學校를 졸업하고 용정 大成中學校, 연길 간도師道學校 등의 음악교원을 하였고 해방직후에는 용정 槿花女子中學校 교장, 永新中學校 교장 등 사업을 맡아 하였다. 그는 대성중학교에서 사업할 때 《두만강 배노래》등 가요를 작곡하였으며 취주악대와 하모니카 合奏團을 꾸렸다. 그 하모니카 합주단은 성부가 구전하고 연주수준도 높았다. 그는 개인독창회도 열어 연변의 음악발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놀았다.

김성태는 1944年부터 新京(長春) 교향악단 작곡부에서 활약하였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天主敎와 基督敎가 전파되면서 일정한 역사시기에 조선민족의 학교를 세워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反日사상을 선전하였다. 교회는 찬송가를 통하여 대략적으로 유럽음악을 접촉하게 하였다. 김문선이 지도한 용정 東北예배당합창단은 다채로운 음악종목을 가지고 경상적으로 공연하여 사회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2) 1920년대 좌우에 곳곳에 반일단체가 무어지고 반일무장부대가 조직되면서 반일운동의 고조 속에서 많은 반일가요들이 유전되었다.

가세가세 독립군아 어서 나가세 나아가세 조선나라 독립군사야
기다리던 독립전쟁 돌아왔다네 자유독립 광복할 날 오늘이로다
이때를 기다리고 십년 동안에 정의의 태극기발 날리는 곳에
갈았던 날랜 칼을 시험할 날이 적의 군사 낙엽같이 쓰러지리라
《독립군가》1~2절 (모두 12절임)



홍장군이 가는 길에는 일월이 명랑한데
왜적군대 가는 길에는 눈과 비가 내린다
에헹야 에헹야 왜적군대가 막 쓰러진다

오련발 탄환에는 군물이 돌고
화승대 구심에는 내굴이 돈다
에헹야 에헹야 왜적군대가 막 쓰러진다
《홍범도장군의 노래》1~2절 (모두 6절임)

이 밖에 《독립군추도가》, 《용진가》, 《복수가》, 《의렬단가》 등 많은 독립군가요들이 불리웠다.

항일가요는 백두산 일대 抗日 근거지 문예의 주되는 부분이다.

《유격대행진곡》은 1933년에 《넙데기》란 별명을 가진 항일전사가 작사한 것이라 한다.

동무들아 준비하자 손에다 든 무장
제국주의 침략자를 때려부시고
용진용진 나아가세 기승스럽게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후렴]
나가자 관가리 싸움에
나가자 유격전으로

손에다 든 무장 튼튼히 잡고 나갈 때에
용진용진 나아가세 기승스럽게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쳐엎자

이 밖에 《결사전가》, 《적기가》, 《연길감옥가》, 《부녀해방가》 등 항일가요가 창작되었다. 太行山 혁명근거지에서는 《조선의 용군행진곡》, 《최후의 결전》, 《혁명가》 등 가요와 《강남아리랑》(충청도민요, 새 가사), 《호메가》(평안도민요, 유동호 작사), 《미나리타령》(민요곡, 리화림 작사) 등 민요곡이 창작되었다.

해방전에 《아리랑》, 《도라지》, 《양산도》, 《농부가》, 《어랑가》, 《심진가》 등 우리 민족민요들이 널리 불리웠으며 1930년대와 1940년대 초에 流行歌들이 매우 큰 영향을 가지고 파급되었다. 《타향살이》, 《눈물젖은 두만강》, 《목포의 눈물》, 《홍도야 울지마라》, 《번지없는 주막》 등은 조국과 고향을 잃고 타향살이 하는 자기의 설움을 담아 고달픔을 달래는 자기위로의 노래들이다.

해방 전 우리 민족음악은 연변과 牡丹江 일대에서 발전한 음악과 장백산 항일근거지 太行山 혁명근거지의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에서 발전한 혁명적 음악 그리고 民族主義 조직들에서 발전한 음악, 재래의 민족음악을 보전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3) 이를 토대로 하여 해방 후 현대중국조선민족음악이 발전하였다.

동북의 새벽하늘 동이 트는 대지우에 모여라 동북인민 우리들의 일터로
새로운 역사 싣고 종소리는 울린다 희망의 아침이다 새 기발을 날리자

가요 《동북인민행진곡》(윤해영 작사 김종화 작곡)



해방 후 흑룡강성 목단강 일대에서는 《동북인민행진곡》 이외에도 《희망의 노래》(김태화 작사, 박한규 작곡), 박한규 작사, 작곡으로 된 《간도》, 《수인의 노래》 등이 나왔다. 연변에서 《토지 얻은 기쁨》(박순연 작사, 리경택 작곡), 《우리는 민주청년》(림원갑 작사, 박우 작곡), 《우리의 향토》(림원갑 작사, 리경택 작곡), 《베짜기 노래》(채택룡 작사, 허세록 작곡) 등 민요풍의 대중가요는 민족음악의 초창기에 영향이 큰 가요이다.

넓고 살진 산과 들 동방의 한 복판에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새로운 큰 나라 해발같이 나타났다 노동인민 한입으로 주인됨을 부르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경축의 노래》 1절 (홍성도 작사, 최호범 작곡)

(4) 건국 후에 이 밖에도 《좋은 종자 가려내세》(김태희 작사, 박우 작곡)가 나왔다.

에루와 어절시구 좋구나 좋네 에루와 두둥실 장고를 울리세
해란강도 노래하고 장백산도 환호하네 연변조선족 자치주 세웠네

《자치주성립경축의 노래》 1절 (차창준 작사, 김성민 작곡)

50년대 초기에 《고향산기슭에서》(김경석 작사, 동희철 작곡), 《아름다운 나의 고향》(최정연 작사, 정진옥 작곡), 《고향생각》(김인준 작사, 허세록 작곡) 등 작품이 나왔다.

정진옥과 김성민의 노래들은 기본상에서 전통적인 우리 민족 민요에 뿌리를 둔 대중가요이고 허세록과 동희철의 노래는 전통민요에 바탕을 두고 창작한 신민요이다.

취주악대는 해방 전에 중학교마다에 거의 건립되어 열기를 띄었다. 해방 후에는 부드럽고 우아한 민족악기에 취주악이 배합되었거나 취주악 단독으로 신민요

정률성

음악에 바탕을 두면서 관현악과 취주악이 나오게 되었다. 이를테면 허세록의《축첩행진곡》,《승리행진곡》,《인민해방군행진곡》,《해란강》등이다.

우리민족의 주요한 작곡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鄭律成**(1918~1976)은 中國의 걸출한 音樂家 聶耳, 洗星海를 뒤이어 나타난 우리 민족의 걸출한 作曲家이다. 그의 歌曲創作은 國內만 아니라 國際上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가 창작한 軍歌는 세계음악사상에서도 보기 드물다. (초기《八路軍行進曲》이었는데《中國人民解放軍行進曲》이라 했다가 軍歌로 다시 고쳤다.)

抗日戰爭 시기에 八路軍, 新四軍 및 해방군의 광대한 人民은 그가 창작한《行進曲》을 부를 줄 알았는데 그의 이름은 革命가곡과 연계되고 있다.

鄭律成은 1933年 5月, 15세 때 中國에 왔는데 드디어 1937년 10월에 延安에 가게 되었고 전후하여 狹北公學抗日軍政大學, 魯訊예술학원에서 학습하고 사업하였다. 1939년 1월 1일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

1938년과 1939년 그의 창작은 고조기였다.《延安頌》,《延水謠》,《生産謠》,《八路軍大合唱》등을 창작하였다.《延安頌》을 창작할 때 그의 나이 20세였고《八路軍大合唱》을 내놓은 때는 21세였다. 1943년 그가 延安에서 창작한《조선의용군행진곡》은 華北, 東北 抗日근거지의 조선의용군 전사들 중에 널리 퍼졌다.

1945년 9월 정율성은 延安의 조선동지들과 함께 조선에 갔다가 1951년 4월에 다시 中國에 돌아왔다.

**許瑞祿**(1916~2000, 원명 허두송)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作曲家, 音樂활동가, 음악교육가이다. 그는 해방 전에 서울연희전문학교 英文科를 마쳤는데 음악은 완전히 자학으로 한 것이다. 그는 40년 말~ 50년대 중기의 약 10년간 음악분야에서 우리 민족음악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한 人物이다. 그가 作曲한《베짜기노래》,《새아리랑》,《새봄》,《품앗이조노래》등은 민족음악의 신민요풍격발전에 최초의 기여로 되며《향수》,《그길은》,《고향》,《고향생각》등은 서정가요풍격의 하나의 독특한 경지를 개척하였으며《길》,《새나라 어린이》,《흘러라 샘물아》,《6 · 1명절의 노래》등은 초기 아동가요창작의 귀중한 유산으로 된다. 특히 그가 창작한《축첩행진곡》,《승리행진곡》등 취주악곡은 中國음악사에서 초기창작의 범예로 되며 그의 관현악창작은 우리 민족관현악 발전의 효시로 된다. 그는 朝陽川 權民中學校, 延邊師範學校, 연변 文工團 등에서 교수와 창작, 지휘, 편곡을 하면서 음악人材에 양성에 힘 다하였다. 그의 계몽교육을 받고 허원식, 김남호, 김덕균, 유영섭 등 허다한 作曲家들이 배출되었다.

허서록

**鄭鎭玉**(1926~1981)은 우리 民族음악유산을 깊이 연구하고 民族風格이 짙은 작품을 창작하여 우리 민족음악이 새 풍격을 형성,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한 作曲家, 지휘가이다.

1944년 4월부터 解放 직전까지 奉天방송국 악공, 무순악단의 지휘로 있다가 해방 후 1945년 9월부터 과외로 무순악단의 바이올린 연주원 指揮, 무순중소한우호협회악단에서 활동하다가 참군하여 선전대에서 음악활동을 계속하면서 많은 作品을 창작하였다. 그는 1949년 조선에 갔다가 1952년 10월부터 연변가무

단에서 音樂교원, 부단장, 당장 등 직무를 맡고 있으면서 많은 作品을 내놓았다. 그는 교성곡《장백의 노래》, 독창곡《처녀의 노래》, 대중가요《아름다운 나의 고향》,《연변타령》,《모내기타령》등 독특한 풍경을 갖춘 애창가요를 창작하였다.

## 2. 연극

1910年代를 좌우하여 한국 서울에서 벌어졌던 연극활동이 인츰 중국조선민족 지구에도 파급되었다. 1914년 좌우에 龍井村, 局子街(延吉) 등지에서 民權自由, 男女平等, 自由婚姻 등을 주장한 신파연극《새가정》,《미신타파》와 같은 작품이 공연되기 시작하였다.

1927년 용정에는 만과외적인 연극단체로 추정되는《藝友社》가 나타났다.

이 연극단에서는 무언극《이렇다!》를 비롯하여 여러편의 희곡을 무대에 올렸다.

1928년 당시 상해에 있던 조선인 정기탁이 상해대중영화공사와 합동하여 安重根의 애국의 넋을 형상한 시나리오《愛國魂》을 영화로 찍었다. 뿐만 아니라 안중근도 자기의 처와 함께 배역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상해에 있던 일본놈들이 간섭하는 통에 부득이 안중근의 이름을 발음이 같은 다른 한자로 바꾸는 수 밖에 없었다.

20년대에 무대에 오른 희곡들로는《경숙의 마지막》,《어디로 갈 것인가》,《야학교으로 가는 길》,《형제》등이다.

1940년대에는 太行山 지구와 陝西省의 西安 등지에서도 연극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리고 上海에서는 이경손, 전창근, 김광주, 崔采 (지금 離職 노간부로서 연길에 있음) 등이《보헤미안(流浪者)극단》이 조직되어 해마다《3 · 1절》이면 반일내용을 공연하였다.



당시 이 지구에서 출연된 극으로는 김학철의《서광》과《승리》, 김창만의《조선의 딸》,《황군의 꿈》, 진동명의《태항산에서》, 고철의《강제징병》, 전창근의《유복자》,《오누이》,《시가전》등이다. 전창근의 시나리오《양자강》을 상해고성영화공사와 합동하여 찍었다.

이외에도 이 시기 여러곳들에서 창작되고 공연된 다양한 제재의 극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4 · 6제》,《싸우는 밀림》,《혈해지창》은 대표적 의의를 가지는 작품이다.

《싸우는 密林》은 까마귀의 작으로서 5장 장막극이다. 이 극은 일제와의 투쟁이 백열화되던 1938년 이른봄을 시대배경으로 하고 있다. 극은 상처가 썩어날 것이 알림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처가 썩는 것을 통졸임통으로 만든 톱으로 살을 도려내면서도 항시 혁명사업을 앞세우면서 해산을 앞둔 안해를 人民大衆의 조직사업에 내보내고 日帝침략자들과 견결히 투쟁하는 유격대 軍需部長 박민과 주구의 밀고로 체포되어 감옥에서 해산한 몸으로 왜놈들의 갖은 酷刑에도 굴하지 않고 희생되는 순간까지 승리를 굳게 믿으며 싸우는 박민의 안해 계순의 형상을 부각하였다. 이 극은 유격대와 日本 침략자간의 生死戰鬪를 극적갈등으로 하면서 유격대원들의 고상한 革命투쟁정신과 革命的 樂觀주의 정신을 구가하고 다른 한편 日帝의 침략만행을 폭로 · 규탄하였다.

2막 1장으로 된 연극《血海之滄》도 까마귀의 작이다. 이 극은 日本 침략자들이《7 · 7사변》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발동하였던 때인 1937년에 창작되어 유격구에서 공연되었다. 극은 기민하고 용감하며 결사적으로 싸우는 조선민족유격대원 뻐꾹새의 形象과 자기들의 목숨으로 부상당한 뻐꾹새를 구원한 한족어머니 쑹마마와 그의 아들 왕평의 빛나는 形象을 부각하였다. 여기에서 가열처절한 투쟁 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朝漢人民들 사이의 우의와 단결을 찬미하였다.

1939년 3월 서안에는 金九 등이 조직한 光復軍 산하에《韓國靑年戰地工作隊》가 있었다. 이 공작대는 1940년 5월에 가극《아리랑》(한유한의 대본)을 공연하였다. 이 가극은 아리랑 산기슭에 사는 목동과 처녀가 가정을 이루고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한국革命軍에 참가하여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되는 이야기를 엮었다. 그리고 연극《한국의 용사》(박동운, 한유한 작)도 창작하여 공연하였다. 전지공작대는《한국행진곡》,《한국강산 3천리에 기발이 오른다》등 노래를 불렀다.

1945년《9 · 3》해방 후 조선인집거구에서 많은 문예조직들이 일어서서 연극이 전례없는 발전을 가져왔다. 牡丹江에《安重根》,《너? 이놈》(신룡검), 연변에서《승리의 혈사》(김평, 천일, 신영준 작) 등 건국 전까지 각 문예단체에서 60편에 달하는 극작품이 나와 매우 활기를 띠고 발전하였다.

《승리의 혈사》는 1930년대 초 일제가 연변에서 수많은 부락을 잿더미로 만들고 백성들을 살해한 해란강대 血案을 제재로 한 것이다. 1946년 겨울, 해란강大血案청산대회가 열리는 기간에 이스크라 극단에서 공연하였다. 이 극은 해방전쟁시기 조선민족극문학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작품이다. 3막극《너? 이놈》은 1947년 4월 경에 목단강시 조선민족 民主同盟文工團에서 공연한 것이다.

구연예술도 민족적 전통에 대한 계승을 토대로 부단히 혁신창조되기 시작했다. 1950년 좌우에 구연장르의 하나인《3로인》이 생겼다. 이 장르는 중국조선민족예술에만 특유한 예술품종이다. 첫작품은《호조조 좋을 시구》(홍성도 작)이다.

1952년《9 · 3》자치주 성립을 좌우하여 黃鳳龍, 崔靜淵을 중심으로 한 극작가대오가 형성되었고 老연출가이며 우수한 연극배우인 許東活 등 배우집단과 연출가들이 출연하였다. 自治州 성립 직후에 건립된 延邊活劇團은 조선민족극발전의 찬란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단막극《새각시》(황봉룡 작),《완두씨》(최정연) 등이 나왔다.

**金焰**(1910~1983)은 1930년대 上海영화계에서《영화皇帝》로 된 중국의 저명한 배우이다. 그의 原名은 金德麟이다.

김염

그는 天津 南開中學校에서 학습하고 상해에 가서 한 연출가의 소개로 南國예술극사 田漢을 찾아갔다. 그는 여기서 田漢의 따뜻한 지도를 받으며 화극무대와 영화계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1932년《1 · 28》사변 후 田漢은 국민당의 체포수색을 피하여 金焰의 숙사에 머무르게 되었다. 김염은 저명한 여배우 阮玲玉, 王人美 등과 合作하였고 1931년~1932년의 두해 사이에 10부의 영화에 등장하여 主役을 맡아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그가 主役을 맡은 抗日과 反封建의 영화는 청년노동자 가운데서 강렬한 영향을 주어 김염과 阮玲玉의 명성은 대뜸 높아졌다.

김염은 그 생에에서《大地金光》,《위대한 起點》,《母親》,《폭풍우 속의 매》등 34부의 영화와 많은 화극에 등장하였다. 일본의 한 벗은《김염은 中國의 저명한 배우일 뿐 아니라 世界의 저명한 표현예술가》라고 평가하였다.

## 3. 무용

우리 민족무용예술은 民族민간民俗무용에 뿌리를 두고 있다.

解放전쟁시기에《따따르춤》,《우크라이나춤》등 구소련무용들을 모방하여 추던 데로부터 遼寧에서《칼춤》, 3지대 조득현의 안무로 된《아름다운 마을》,《참군》등 작품이 나왔다. 연변에서《도라지》,《노들강변》,《양산도》,《강강수월래》등 민요에 간단한 동작을 엮어 추었다.

할빈에서 비래무를 전공하고 풍부한 예술실천을 쌓은 조득현과 조선에서 민족무용의 조예를 깊이 닦은 박원용이 延邊文工團에 오면서 민족무용을 간단없이 추진 · 발전할 수 있었다.

建國 初 무용예술발전에서 특징적인 색채로 나타난 점은 선동성과 고동성이다. 그 주요한 창작성과는 群舞창작과 舞劇창작, 歌舞劇의 창작이다. 군무창작은 생산복구, 전선지원, 生活의 기쁨, 새 정권의 보위와 공고 등 주제를 다룬 것이다. 이를테면《절구춤》,《지게춤》,《빨래춤》,《샘물터》등이다. 군무에서 이 밖에 조선민족이야기, 역사이야기, 전설 혹은 전통무용을 소재로 한《칼춤》,《농악무》,《활춤》,《승리경축무》등이다. 舞劇《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는 人民들의 강렬한 반향을 일으킨 代表的 작품이다. 가무극《뱀과 농부》는 형세와 배합한 것으로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農樂舞》, 50年代에 조득현은 무용을 발굴 · 정리하면서 농악무로 하여금 땅의 主人으로 된 農民들의 기쁨과 행복한 생활을 반영하는 춤으로 발전시켰다. 군무《농악무》는 전형적인 정서율동무용으로서 우리 민족의 농악놀이 민속춤을 새로운 시대미감으로 재창조한 성과적인 作品이다.

《활춤》은 쌍무로서 역사상 우리 民族이 反侵略 전쟁에서 나타난 애국주의 정신을 구가한 作品으로서 이 무용의 창작은 역사제재에 어떻게 현대의식을 부여하며 감동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무용화하는가 하는 이야기무용창작에 대해서 선도적 역할을 놀았다.

**趙得賢**(1923~2002)은 1935년 예술에 전공할 환경, 조선을 찾아 할빈에 오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러시아예인들이 꾸린 고전발레무극단과 접촉하였으며 모스크바극장의 독무가 구야또브쓰까야에게서 반공반독의 길을 걸으며 발레무를 배웠다. 견인분발한 의력과 예술에 대한 탐구력은 선생의 눈에 들었다. 불과 1년도 안돼 그는 무용배우로 등장하여 무대에서 두각을 내밀기 시작하였다. 할빈교향악단의 발레무안무교원 이제홉쓰끼는 그를《백조의 호수》,《끝나지 않은 교향악》등 발레무극 중의 솔로로 안배하였다.



조득현은 1947년 2월에 조선의용군 제3지대 선전대에 입대하였다. 그는 점차 인생관, 문예관을 개변시켜 자신의 인간을 완성해가지고 자신의 예술을 완성시켜갔다. 따라서 민족무용발전의 필요성을 직감하고 그 면에 모를 박게 되었다.

1949년 2월부터 조득현은 연변문공단의 교원, 연변가무단의 부단장, 연변예술학교의 부교장 등 직무를 담당하면서 수많은 무용가를 키웠고 러시아춤으로부터 민족무창작에 과도하면서《농악무》,《장고춤》,《활춤》과 무극, 가무극창작에서 성과를 올렸다.

**박용원**(1930~ )

《조선민족의 무용예술을 꽃피우련다》는 포부를 품고 조선 최승희무용연구소에서 기량을 닦은 그는 1953년에 연변가무단에 배치받은 후 우리 민족의 무용훈련반을 꾸리고 인재양성에 힘썼다. 1957년에 연변예술학교가 건립되자 신근한 원예사로 되었다.

그는 우리 민족의 특점을 연구하고 탐색하였으며 이론체계를 세웠으며 규범화하고 체계화한 동작을 교과서로 써냈으며 (《조선민족무용사》초고)교단에서 이론을 강의하였다. 독무《도라지 꽃》은 그의 대표작이다. 이 밖에 2인무《봄맞이》,《장고춤》등 좋은 작품을 안무하였다.

## 4. 미술

1949년 건국 전 시기는 우리 조선민족미술의 토대를 이룩하는 시기였다.

해방 후 代表的인 화가로는 한락연, 신룡검, 정창파, 장진광 등이다. 建國 이후 藝術敎育, 創作대오, 創作실천에서 현저한 발전을 가져왔다. 건국 초 연변敎育出

版社, 연변文工團과 中小學校에 몇 명 밖에 미술일꾼이 없는 형편에서 노일대 미술간부들은 우리 민족의 미술일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中小學校의 미술교원들을 양성하는 데 큰 힘을 들였다.

이리하여 1951년 3월에는 연변師範學校에 美術班을 설치하고 학생 31명을 모집하였다. 1951년 8월에는 中學校 미술교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연변大學에 美術專科班을 설치하고 학생 20명을 모집하였다. 石熙滿, 朴勝九를 미술교원으로 모시고 油畵의 기초과정을 전수하였다. 50여명 학생이 졸업한 후 東北三省의 中小學校에 배치되어 美術界의 후비力量이 자라나게 되었다.

창작대오가 형성되기 전 50年代 초에는 주로 出版畵가 많이 창작되었다. 출판화에서 代表的 人物은 지승원을 들 수 있다. 연속화《농민 가운데 새 人物 – 김준화》(30폭)은 지승원의 處女作이면서 또한 代表作品의 하나이다. 그는 자습하여 예술가로 되었는데 그의 예술 특점은 소묘기초가 늦늦하고 간결미가 있으며 선은 정확하고 미끈하고 인물조형이 단정하고 우아한 것이다.

건국 초와 자치주성립 초의 유화창작으로는 石熙滿의《老人讀報組》와 이동구의《새로운 희망》, 김익종의《온실일각》, 권도순의《새벽》, 안광웅의《재미나는 책》, 전동식의《귀향》등을 들 수 있다.《老人독보조》는 석희만의 건국 후 첫 작품인데 그후 吉林省 미술전람회에서 1等賞을 받았으며 全國美術 전람회에 입선되었다.

### 미술예술분야의 주요한 人物

**韓樂然**(1898~1947)의 원명은 韓光宇이다.

韓樂然은 1898년, 길림성 延吉縣 龍井村의 한 개척민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話務員, 海關의 사무원을 하다가 1919년 3월에는 어려서부터 숙망인 미술공부를 하려고 소련 沿海州에 갔다가 1920년에 中國上海로 와서 전차회사에서 차장을 하면서《上海美術專科學校》에서 半工半讀하였다. 여기서 素措, 速寫와 水彩畵, 油畵 등을 배웠다. 이것이 한락연에게 있어서 숙망이 실현되고 뜻을 펼 수 있는 토대로 되었다.

한락연

1922년 겨울, 그는 中國民主主義혁명가인 孫中山(孫文) 선생을 만날 기회를 가졌는데 中國과 朝鮮의 民族해방운동과 관련하여 교시를 듣고 커다란 고무를 받았다.

1922년 봄 상해미술전과학교를 졸업하고 沈陽에 가서 화가이며 國民당당원의 신분으로 공산당의 지하사업을 하였다. (그는 二重 신분으로 있었다.) 그는 심양에서 미술전과학교를 창설하였다.

1925년 7월에 그는 할빈에 파견되어 保育學校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다. 그는 여기서 楚圖南, 趙尙志, 王光綠, 장우인 등과 함께 청년독서회 平民야학교를 꾸리고 청년지식인과 학생들 속에서 사업하였다.

1929년 한락연은 프랑스에 留學을 갔다. 빠리 美術학원에 입학하여 西洋畵를 전공하였다. 공부를 마친 후 화란, 스위스, 소련, 영국, 이탈리아 등 구라파 나라를 여행하면서 구라파의 전통적인 예술을 탐구하였다. 그는 빠리에서 프랑스공산당에 가입하였다.

1937년 7월 武漢에 돌아와 抗日선전활동에 참가하였다. 1939년에는《전지당정위원회》책임자 李濟深에게 소개되어 統戰사업을 진행하였다.

선후 20차의 개인미술전람을 열어 抗日경비를 보태었다.

화가로서의 한락연은 뛰어난 재질과 숙련된 기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풍속화,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와 古代벽화의 림화 등 여러 방면의 제재의 작

품이 있다. 이런 작품들은 색채가 명랑하고 쾌활하며 짙은 지방特色과 生活의 숨결이 흘러넘치고 있다. 그의 화풍은 소박하고 자연스럽다. 1947년 7월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다. 저명한 화가 한락연의 모든 작품들은 관중들에게 막아낼 수 없는 감화력을 주고 있다.

**石熙滿**(1914~ )은 예술교육가이며 畵家이다.

소학교 시절에 철봉대에서 놀다가 오른팔을 상해 종신불구로 된 그는 왼손을 쓰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화가의 길에 정진하였다. 그는 龍井東興中學 시절에 서울에서 온 화가 한필주 선생한테서 화법을 배웠는데 1930년 전 조선중학미술전람회에 그의 작품도 입선되었다. 937년에는 프랑스만국박람회에 전시할 일본미술학생素措콩클에서 그는 1등상을 탔다. 1940년에는 신자연파미술가협회 회원으로 되었다. 1938년 3월부터 1940년 3월까지 2년 동안에 제8차, 제9차, 제10차의 일본독립미술가협회 미술전람회에 그의 작품이 입선되었다.

1939년 2월에 日本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의 연구과에 진입. 1940년 7월에 연구과수업을 그만두고 용정에 돌아왔다. 그는 용정에서 중학교 미술교원도 하고 1944년 7월에는 장춘 위만교육회에서 사업(각급학교 교재의 삽화 그림에 종사).

유수천에서 야외사생하는 석희만



해방 후 그는 장춘에서 다시 간판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1951년에 연변대학 미술강사로 美術학과를 꾸리었다. 1957년에는 연변예술학교 부교장으로 미술학과를 꾸렸다.

그는《노인독보조》등 작품을 내놓은 뒤를 이어 유화《농악무》,《탈출》,《사과배의 노래》, 파스텔화 등을 내놓았다. 그후 그는 파스텔화 개인전람도 열었다.

유화는 석희만의 예술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형식인데 그의 유화는 남다른 특색을 갖고 있다. 그는 파스텔 창작에도 깊은 연구를 하였다.

# 제3절 신문 간행물

## 1. 20년대 民聲報의 抗日투쟁

《民聲報》는 本世紀 20年代에 東北地區에서 中文과 朝鮮文으로 꾸린 진보적 신문이다. 이 신문은 民意를 대표하고 백성의 목소리를 反映한다는 趣旨에 따라서 《民聲報》라고 이름지었다. 《民聲報》는 日帝가 연변에 대하여 政治, 經濟, 文化, 軍事 상 全面적 침략을 감행하던 시기에 탄생하였다.

반일기사를 실은 1928년 5월 27일부 〈민성보〉

《民聲報》는 1927년 여름, 延吉, 和龍 두 개 현의 人士들, 主로는 화룡현 敎育局 국장 관준언(關俊彦), 龍井村전화국 국장 방지함 등의 창의와 기타 현의 교육계, 공상계의 愛國人士들의 도움 밑에서 광범위하게 의연금을 모아 龍井村 신안거리에 신문사를 세웠으며 1928년 1월에 《민성보》가 정식으로 발행되었다.

한문판 총편집 : 안회음

조선문판 총편집 : 윤화수

후에 《민성보》는 지하공산당의 《공개신문》으로 불리우게 되었으며 中共연변



지구지하당조직의 요람으로 되었다.

《민성보》의 편집종지는 밖으로 원쑤를 막고 안으로 간첩과 반동파를 타매하는 것이었다. 《민성보》는 투쟁의 예봉을 직접 日帝와 국내통치계급에게 돌렸으며 각성하여 다같이 대적하며 다같이 외환을 막아나서라고 호소하였다.

《민성보》 편집 沈茹秋는 北京大學을 졸업하였는데 日帝가 《경신대토벌》을 감행한 天人共怒할 죄행을 폭로한 《延邊調查實錄》을 게재하여 놈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1930년 沈茹秋는 암살되었다. 이때의 나이는 25세이다.

1928년 5월 30일부에는 이런 詩가 실렸다.

**백색테로**

남문용

지구의 右弦은
백색의 가을…
반동의 불길에 탄다.

천년을 굴러온
만년을 굴러갈
역사의 차륜을

뒤로뒤로 거꾸로 끄으는 놈
세기의 野奴!!
임페리알리스트!!

병기공장의 대번영…
노동역의 박탈…
세기의 재분할…

○○도살의 준비!!
보라!!
산동의 血巷을!!
제남의 ○○을!!
피에 주린 餓鬼의 狂舞를!!
島國의 무쏠리니는 이제야
노동대중의 목을 비틀고
붉은 피!! 피바다를 헴치여
악마의 哄笑에 겨웁지 않으냐!!
○○의 ○○!!

최후의 발악!!
아아, 세기의 野奴!!
《브르죠아지가 망하냐?
피압박민중이 망하냐?》
결전의 날은 가까웠다.
인류 최후의 스테트멘트

동경의 지옥!!
반도의 ○○!!
4억의 ○○!!
혁명의 전야는 왔다.

이 시는 날카로운 시구로 일본침략자를 통책하였다.

《민성보》는 각 방면의 적극적인 역할을 놀았는 바 마치 한자루의 비수가 원쑤의 심장을 찌르듯이 일제와 낡은 정권의 통치계급을 침중하게 타격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민성보》를 죽을 지경으로 미워하고 두려워하였다.



《9 · 18》사변 후에 왜놈파쇼통치의 강압 하에《민성보》는 정간되었다.

## 2. 30년대 신문 간행물

《9 · 18》사변 후 30년대에 조선간행물은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발간된 것, 조선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발간된 것, 反日民族주의자들에 의해 발간된 것 등이 있다. 그리고 문예잡지도 발간되었다.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꾸려진 신문들은 1932년부터 1934년 사이에 발간되었다. 《東滿週報》, 《青年투쟁》, 《農民투쟁》, 《反帝戰線》, 《兩條戰線》, 《東滿民衆報》, 《전투日報》등 15種에 가까웠다.

《兩條전선》은 1932년 하반년 中共동만특위에서 延吉縣 智新鄕 松林洞에서 꾸렸다. 이 신문은 主로 左 · 右傾路線을 비판하고 당의 정확한 路線과 政策을 선전하였다.

《東滿週報》역시 中共東滿特委에서 연길현 지신향 송림동에서 꾸린 신문인데 主로 당면 투쟁에 대한 글과 투쟁 중에서 나타난 오류를 비판한 글을 실었다.

《青年투쟁》은 의란구 남동에서 꾸린 中共延吉縣委의 신문이었는데 主로 공산주의청년단의 당면투쟁과 현내 형편을 반영한 글을 실었다.

《農民투쟁》은 연길현 농민협회가 석인동에서 꾸린 신문인데 주로 農民들의 反帝, 半封建 투쟁을 지도하며 현내 형편을 반영한 글을 실었다.

《노동자의 生命》은 연길현 혁명소조가 의란구 복동에서 꾸린 신문인데 주로 革命思想과 互助운동의 발전을 선전하였다.

《少年先鋒》은 少年團 연길현위가 依蘭溝 남동에서 꾸린 신문으로서 주로 軍事지식강좌와 地方少先隊의 발전에 대한 글을 실었다.

이 밖에도 《大衆신문》, 《전투종성》, 《전투소식》, 《해방전선》, 《반제전선》 등 신

문간행물들이 잇다. 抗日구국주장을 선전하고 東北을 침략한 日帝의 하늘에 사무치는 죄행을 폭로 규탄하였으며 日本침략자들과 단호히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9 · 18》 사변 후 조선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꾸려진 신문간행물로는 《3 · 1 월간》, 《화전민》, 《서광》, 《종소리》, 《철혈》 등이 있다.

《3 · 1 월간》은 1936년 12월 1일, 조선 祖國광복회 기관지로 창간된 大衆政治理論 월간잡지이다. 이 잡지는 抗日부대와 長白지구에는 물론 조선에도 보급, 침투되어 당시 조선문신문간행물 가운데서 주목을 끌었다.

《화전민》은 1937년 1월 조선민족해방동맹의 기관지로 창간되었다.

《曙光》은 1937년 5월 3일에 창간된 抗日부대의 기관지이다. 이 신문은 조선革命의 여명이 밝아온다는 뜻에서 그 이름을 《曙光》이라고 달았다.

《종소리》는 抗日부대가 마당거우밀영에서 군정훈련을 진행하던 시기인 1937년 12월 27일에 창간된 대내주간신문이다. 이 신문은 항일유격대원들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며 대부분이 항일유격대원 자신이 쓴 글을 실었다.

《철혈》은 1939년 항일부대의 돈화원정의 나날에 창간된 반일청년동맹 기간지이다.

《9 · 18》 사변 후 연변지구에서 발간된 《北鄕》, 《카톨릭소년》 등 문학잡지는 비교적 진보적인 간행물이다.

《北鄕》은 1935년 10월 龍井에서 창간된 문학잡지로서 文學단체인 《北鄕會》에서 꾸리었다.

《카톨릭소년》은 1936년 2월 龍井에서 창간된 전도적 성격을 띤 아동문학잡지이다. 이 잡지는 天道敎敎會에서 꾸렸는데 사장은 백화동, 주필은 황덕영이었다. 이 잡지는 천주교를 선전하는 글과 사진, 동요, 동시, 아동소설 등을 실었는데 조선말과 아동문학을 살리는 데 일정한 역사적 역할을 하였다.

《9 · 18》 사변 후 東北에서는 《만몽일보》, 《만선일보》, 《재만조선인통신》, 《간도협화회》 등과 같은 반동신문도 발간되었다.



《滿蒙日報》는 1934년 8월 25일, 新京(長春)에서 창간된 신문이다. 理事長에 이경재, 상담역(고문)에 이상협, 편집국장에 김우평이다. 이 신문은 日帝가 大陸침략의 야욕을 치우기 위해 창간한 것이다.

《滿鮮日報》는 1937년 5월 5일 《滿蒙日報》를 개제 발간한 2절지 4개면 日刊紙이다. 社長 이용석, 편집국장 염상섭이다. 1942년부터 主筆과 편집국장은 모두 日本人이 맡아 하였다. 이 신문은 光復 전 東北에서 影響力이 가장 큰 조선문 신문의 하나였다. 이 신문은 서울과 東京에 支局을 두었다.

《만선일보》는 비록 日帝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는 그들의 喉舌이었지만 反日애국지사들은 놈들의 검열을 피해가면서 진보적인 내용들을 실었다. 이를테면 편집자는 金昌杰(그 시기의 진보적 소설가, 해방 후 延邊大學 조문학부주임)의 《建設譜》를 실으면서 日帝의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 《필봉을 좀 낮추라》고 귀띔하였다. 또 이 신문은 金日成의 抗日투쟁정황을 보도하면서 마치 關東軍의 대토벌성과인 듯 자랑하지만 이 기사는 조선민족대중에게는 金日成 부대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받아들이면서 民族의 曙光이 비추는 것으로 하여 긍지와 자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역할을 놓은 것이다.

《在滿朝鮮人通訊》은 1930년대에 발간된 신문이다. 이 신문은 공공연하게 《東亞大同》을 찬양하면서 日帝의 침략적 죄행을 변호하여 나섰다.

《間島協和會報》는 1940년 경 위만주국 간도성협화회 本部에서 조선인협화회 회원을 대상해서 꾸린 8절지 2개면 부정기 간행물이다. 주필은 윤병남.

이런 신문간행물들은 조선인을 위한 여론기관이란 허울을 쓰고 生存權의 主張과 민중의 문화의 보급, 민족 協和의 보도매체라는 구실 아래 침략자를 구가하는 성격을 띤 것이었으나 일제의 검열을 피해가면서 진보적인 내용을 실은 것도 있었음을 부언한다.

## 3. 광복후 延邊에서 발간된 신문

《韓民日報》는 1945년 9월 18일에 연길에서 창간되었다. 이 신문은 광복 후 연변에서 제일 처음 창간된 조선문신문이다. 11월 4일에 폐간되었다.

이 신문은 우선 공산당과 국민당에 관한 기사를 중시해 실었다. 그리고 한 반도 정세, 중소(中蘇)친선, 지방소식 등이다. 연변민주 大同盟에서 《연변민보》를 창간하게 되기에 《한민日報》가 폐간되었다.

《연변民報》는 1945년 11월 5일부터 연변民盟의 기관지로서 연길에서 발간되었으며 11월 24일부터 연변전원공서 기관지로 되었다. 1946년 5월까지 104호를 발간하고 폐간되었다.

主筆 姜東柱. 人民政權, 공산당, 소련붉은 군대 및 겨레에 대한 소식을 많이 실었다. 겨레와 조선의 운명에 관한 소식에도 특별한 중시를 돌렸다.

《人民申報》는 1945년 10월 16일 牡丹江에서 고고성을 울렸다. 신문은 中共牡

독자들이 즐기는 다양한 조선문 잡지들



丹江地區 조선인 工作員會의 지도 밑에서 운영되었다.

처음에 한송웅이 주간을 맡았다가 후에 이홀열이 주간을 맡았다. 발행부수 7,000부, 보도내용은 《연변민보》와 비슷하였다.

《人民申報》는 극히 어려운 북간도 일대에서 자못 큰 역할을 하였다. 광범한 조선민족인민들을 政治文化的으로 啓蒙 · 각성시키고 조선민족人民들이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을 인식하고 해방전쟁과 근거지 건설에 뛰어들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1948년 3월 2일에 폐간되었다.

《吉東日報》 조선문판은 吉東군구 정치부에서 《연변민보》를 접수하여 1946년 5월 4일에 창간한 신문이다. 총편집 兪京善이다. 이 신문은 8월에 정간되었다. 中共吉林省 사업위원회, 성정부와 성軍區가 延吉에 옮겨오면서 吉林省위 기관지인 《人民日報》도 연길로 옮겨왔다. 그리하여 《吉東日報》와 합병하여 9월 1일부터 《人民日報》 조선문판을 발간하였다.

《人民日報》는 中共吉林특별지부에서 1945년 10월에 吉林에 창간한 신문이다. 《인민일보》는 조선문판도 내었는데 《人民日報》가 《吉林日報》로 개제, 발간되자 《吉林日報》 조선문판으로 되었다. 이 신문은 여전히 吉林省委기관지의 한 구성부분이었다.

《吉林日報》의 이 시기 보도내용은 해방전쟁, 土地改革, 生産建設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947년 11월 합본의 《要目》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社報 | 3 | 鞏固後方 | 3 | 평론 | 1 |
| 指示 | 2 | 軍事 | 26 | 公粮 | 5 |
| 參軍 | 3 | 英模 | 7 | 戰勤 | 4 |
| 經濟 | 1 | 群工 | 13 | 朝鮮 | 3 |
| 經濟 | 3 | 英模 | 5 | 土改 | 3 |
| 共委 | 1 | 國際 | 9 | 其他 | 3 |

경애하는 주은래 총리께서는
1962년 6월 23일, 연변을 시찰하실 때
〈연변일보〉에 대하여 깊은 배려를 돌리시며
조선문 신문을 잘 꾸리라고
주위 령도 동지들에게 지시하시었다.

광복으로부터 건국까지 기간에 연변에는 이 밖에도 汪清에서《百姓報》, 龍井에서《학습과 전투》, 延吉에서《時事旬報》가 발간되었다. 상기 신문과 때를 같이하여 국민당세력권내에서 중국주재한국대표단 동북총판사에서 발간한《東北韓報》가 있었다. (1946~1948년 심양해방까지) 사장은 허우성, 편집국장은 한태균이다.

《연변일보》의 창간

1948년 3월에《吉林日報》조선문판이 폐간되자 그해 4월 1일에 中共연변地委 기관지로《연변일보》가 연길에서 창간되었다. 사장 崔采, 총편집 林民鎬.

북만(北滿)의《民主日報》

할빈시민주연맹기관지《신민일보》, 조선의용군 제3지대의 내부통신인《전투보》, 동북행정위원회기관지《民主日報》가 合刊되어《民主日報》로 되었다. 신문은 東北行政委員會 민족위원회기관지로서 北滿을 中心으로 全東北의 조선민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민주일보사는 1948년 5월부터 따로《어린이신문》을 발간하였다. 편집인은 金太熙, 任鎬였다.

南滿의《단결일보》

《단결일보》는 1947년 11월에 창간되었다. 이 신문은 1948년 5월에 정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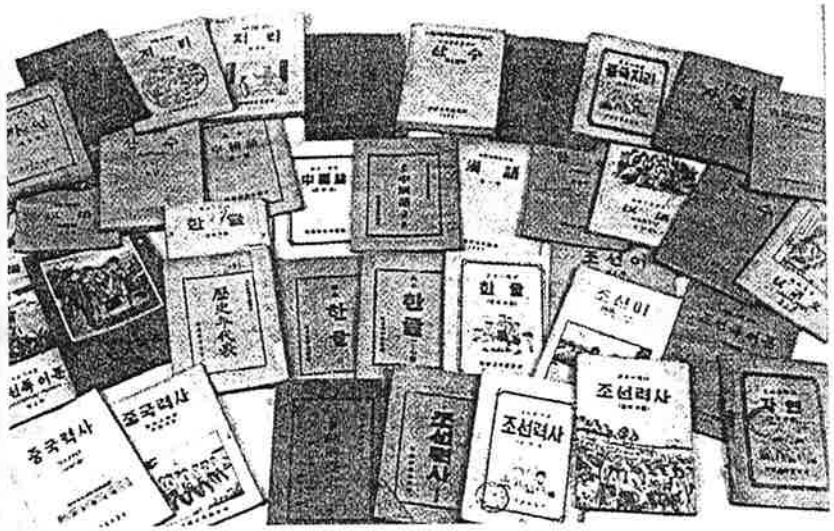
## 4. 東北朝鮮人民報 출현

전 동북이 해방된 후 연길의《연변일보》, 할빈의《민주일보》, 심양의《단결일보》를 합병하여 1949년 4월 1일에《東北朝鮮人民報》를 발간하였다. 당시 발행수는 29,923부였고 1,583호를 내고 정간하였다. 1949년 11월 7일에 이 신문은《勞農版》을 따로 냈다.

## 5. 광복 후 조선문잡지

광복 후 발간된 정치잡지로는《사회과학강좌》,《연변통신》,《시사순보》,《민족공작통신》,《농민의 기쁨》등이 있다. 종합잡지로는《신건설》,《이스크라》,《민주》,《신청년》,《해방》,《건설》,《대중》,《연변문화》,《문화》등이다.

이런 잡지들은 광복 직후 牡丹江, 延吉, 할빈 등지에서 창간되었다.



건국초기에 연변교육출판사에서 편집출판한 교과서들

《농민의 기쁨》은 1949년 7월 1일에 동북조선인민보사에서 편집, 출판하는 정치 시사성을 띤 종합잡지로서 당시 조선족인민들 속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정치잡지이다. 이 잡지는 4호까지 내고 1949년 4월에 정간되었다. 《신농촌》은 1949년 11월 1일에 연길에서 발간된 반월간지이다. 이 잡지는 《농민의 기쁨》의 개제 발간이며 발전이다. 이 잡지는 中共中央에서 꾸리는 《신농촌》을 번역하였다. 정책해석, 기층지도경험, 호조합작경험, 학습, 소련집단농장소개, 동유럽국가소개 등.

건국 후 《신농촌》 잡지 외에도 1950년 9월 30일에 《당의 건설》, 1950년 4월 25일에는 《소년아동》 등. 1951년 초에는 《학습》이 새로 창간되었다. 《당의 건설》은 지시, 조사보고, 총화, 통지요강, 의견 등을 내용으로 區級까지 발급하는 당내 간물이고 《학습》은 국내문제와 국제문제, 현실문제와 역사문제 등 각종 문제에 대한 理論적 답안을 주는 간물이다. 《소년아동》은 초창기 주필은 최형동. 처음 몇 년간은 혁명수령에 대한 이야기, 신구사회를 대비한 것, 중소친선, 미제에 대한 견책, 오애교양, 조선어지식, 과학지식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 6. 조선말방송

중국내에서의 첫 조선말방송은 1938년 4월 1일 연길에서 생겼다. 1943년에 연길방송국을 간도방송국으로 개칭하였다. 호출번호 MTKY, 주파수 785KHz이다. 중어와 조선어를 교대 방송하였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할 때 근무하던 日人들은 도망치면서 기계설비를 마구 까부시고 파괴하였으나 조선인과 중국인 종업원의 저지를 당했다.

광복직후 만주국 26개소 방송국 중에서 11개소가 파괴되고 15개소가 팔로군 계통에서 보호하고 접수하였는데 연길방송국은 1946년 1월 3일부터 소련군대 사령부의 보호 하에 방송을 회복하였다. 회복 초기에는 소련과 중국 신화사방송



을 중계하다가 1946년 7월 1일에 정규방송을 시작하였다. 이때의 명칭은 연길신화방송국이었다. 1948년 11월 1일에 중국연변지방사업위원회에 소속되고 연길방송국으로 개칭하였다.

### 牡丹江의 조선어방송

1945년 8월 광복 당시, 원 牡丹江중앙방송국은 심하게 파괴되었다. 1947년 8월 15일에 수건을 거쳐 정식 시작했다. 국장은 許法이다.

### 中央人民방송국 조선어방송

이 방송은 중국 국내에서 조선어로 보도하는 유일한 중앙급 보도매체로서 200만 겨레들을 주요대상으로 삼고 봉사한다. 중앙방송국의 전신은 1940년 12월에 延安에서 고고성을 울린 延安신화방송국이다. 中央방송은 25개 방송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의 소수민족방송부는 조선어, 몽골어, 위글어, 까자흐어, 지베트어 등으로 민족어방송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 제4절 민족醫學

中國漢醫學의 한 개 학파인 조선민족의학은 고려의학의 토대에서 中國의학을 간단없이 흡수하여 새롭게 형성, 발전한《天人一理論》을 지도로 한 辨象論治와 辨證論治를 서로 結合한 전통의학理論체계이다.

1892년에는 李濟馬의《四象의학학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사람과 자연, 사회환경 사이의 관련성을 중시하여 天人生命整天 관점을 제기하였다.

바로 이러한 전통의학理論체계를 이어서 中國에서 조선민족의학대오와 기구가 형성되었다. 1923년에는 조선민족의 金舜鳳 등이 六道溝(지금의 龍井)에 의학연구회를 성립하여 의학강좌를 조직하였다. 和龍, 汪淸, 琿春, 安圖 등 현에도 파급되어 20년대 말에는 700여명의 회원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민족의를 양성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정부의 의탁에 의하여 의사집행자격시험도 맡아보게 되었다. 조선민족의는 1928년에는 319명으로 증가되었다.

1932년에 漢醫協會를 내오게 되어 조선민족의의 合法的權益을 수호하게 되었다. 李常和를 회장으로 間島省漢醫 강습회가 성립되고《한방의학강의록》이 편찬되고 두기의 강습회가 열리었다. 흑룡강성과 요녕성에도 분포되어 인수는 무려 600녕으로 발전되었다. 1945년 전까지 연변경내에는 조선민족의의 인수는 460여명으로 되었다.

中國조선민족의대오에는 四象의학理論을 의료실천에서 심입하여 연구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李濟馬가 연구한 四象의학理論인《東醫壽世保元》의 필사본이 연변에 들어왔는데 이로써 중국조선민족은 비교적 일찍 四象의학理論을 접수하게 된 것이다. 四象人病理論이란 陰陽盛衰, 寒熱多寡, 臟局大小, 六經證局限等을 말한다. 龍井의 의학연구회에서는 1927년 四象의학연구반을 세워 四象의사를 양성하였다. 조선민족의대오의 第一代 四象의로는 白丁, 都殷奎, 金良洙, 金九翌, 李仁柏, 朴泰俊 등이다.



20세기 40년대 시기에 조선민족의학계의 名望있는 四象의는 金九翌이었다. 그는 저서《四象臨海指南》을 펴내어 四象寒熱分型을 주장하고 175종의 藥物에 대하여 四象藥性을 론술하였으며 138조의 四象經驗力을 소개하였다.

20세기 40년대에 中國조선민족 의학계에 새로운 金聖培가 출현하였다. 그는 上海의과대학에서 西醫를 배운 후 民族의와 漢의를 자학하여 四象의학과 體質論을 硏究하였다. 그는 李濟馬가 論한 四象體質에 대하여 寒熱性, 陰陽性 각도로부터 연구하여 太少陰陽人을 陽性人, 陰性人, 熱性人, 冷性人으로 이름짓고 이를 일러 四性의학이라 하였다. 四性의학의 四性은 실제상 四象을 四性으로 바꾼 것이다. 四象의학의 四省鑑別法, 四性治療法과 四象의학의 辨象論, 四象治療論은 기본상 相同하다. 金聖培의 理論은 四象의학의 理論을 가일층 충실히 하였다.

1949년 中華人民共和國이 창건되면서 도시와 농촌에 대한 防病 · 治病 방침의 지도 하에 조선민족의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곡절과 좌절은 막을 수 없었다. 일부 상층人士들은 조선의학에 대하여 조선민족의학理論과 中醫理論의 근사한 일면을 편면적으로 강조하면서 조선민족의의 독특한 특색을 홀시하였다.

아래에서 연변의학계의 人物을 더 들어보인다.

의학박사 虛基舜(1893~1957)

1917년에 日本 九州帝國大學 의학부를 졸업하고 1932년에는 박사학위를 수

여받았다. 1936년에는 中國에 왔다. 1946년 10월에 吉林省 龍井의과대학 학장, 1948년 10월에는 연변의과전문학교 교장으로, 1943년 3월에는 연변대학 의학부 학부장으로 있었다.

그는 생물화학연구에 종사하여 일찍 1929년부터 1931년 6월까지 포유동물체내의 뇨산분해효소와 뇨산분해효소산화에서 생산되는 알라로인 및 수해알란토인의 알란토인이나제를 연구하였다. 그는 선후로《뇨산분해효소에 관하여》등 론문을 펴내었고 체내의 푸린 대사산물인 뇨산의 분해대사, 특히는 뇨산분해효소에 대하여 창조적으로 탐구하였는데 이런 성취는 일본, 미국, 영국 등에도 널리 소개되었다.

### 金明旭

臨床의학가, 의학교육가인 그는 일찍 간도성한의강습회의 강사였는데 중국조선민족의 十大명의 중의 한 사람이다. 金明旭은《五行學說을 辯證施治에 응용한 몇가지 체득》등 論文과《西珍東治經驗方》의 저서를 펴내었다.

1952년 自治州 창립 이후에《中國의학百科全書》에《조의四象의학》이 正式 納入되었다. 조선민족전통의학은 中國漢醫學의 조성부분으로 불후의 공헌을 하고 있다.



# 제5절 체육

## 1. 9 · 18 사변 전 체육

### 私立學校교육과 近代體育

중국에 이주한 초기에 私立학교 교육을 발전시키면서 체육과목을 설치하였다.

사립학교들을 보면 체육교육에서 병식체조와 軍事훈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립학교들에서는 자주 학교별 운동회 또는 학교들의 연합운동회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운동회는 民族心을 크게 고무해주었고 해마다 단오에는 조선민족의 民族的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명절을 기념하곤 하였다. 이를테면 1913년 5월, 단오절에 이틀간 北間道의 局子街에서 연합운동대회가 열렸다. 참가자 1만 5천명, 경기종목은 도수체조, 競步, 대한지리지식경쟁, 대한역사지식경쟁, 二人三脚競步, 눈가리고 달리기 등이었다.

축구는 좀 늦게 보급되었다. 1925년에 다라즈(大拉子)에서 축구시합이 있었는데 동신학교가 두번째로 우승기를 탔다.

### 間島體育會의 성립

1925년 10월 19일 용정에서 발족되었다. 회장은 강재원. 1926년 5월 26일부터《간도체육회》의 주최 하에 간도축구대회가 용정에서 개최되었다. 참가팀은 少

年部에 10개 팀, 靑年部에 5개 팀이었다.

《간도체육회》는 그 성립시기부터 1936년 제 3회 전 간도축구선수권대회에 이르기까지 축구대회, 농구대회, 육상경기대회, 정구대회 마라톤대회, 빙산경기대회, 민속경기 등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각 현진에 체육민간단체들이 나와 우리 민족의 체질을 증장시키고 민족의 위풍을 떨쳤다.

이 시기 불리운《응원가》는 이러하다.

무쇠골격 돌근육 소년남아야 만인 대적 연습하여
황황한 대한혼 발휘하여라 후일 공훈 세우세
다달았네 다달았네 우리 나라에 절세영웅 대사업
소년의 활동시대 다달았네 우리 목적 아닌가

민간단체로서의《간도체육회》가 體育행사사업을 맡아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극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근대체육에서 체육장을 갖추어야 할 어려운 처지에서도 용정에서 해란강에 스케이트장을 건설하고 대회를 가지는 등 선수양성에 노력하였다.

## 2. 1931~1940년대 체육

1936년에 이르러 일본침략자는 大衆的 체육단체를 모두 해체시키고 연변지구에《滿洲體育聯盟 間島省事業局》을 내왔으며 산하에 일제침략정책에 순종하는 체육회들을 조직하였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이런 조직에만 매달려있지 않고 여러가지 체육활동을 활발하게 벌리었다. 연변지구에 처음으로 金躍淵 교장의 지도 밑에 明東학교축국팀이 탄생된 뒤를 이어 노상렬 선생을 지도로 하는 학교축국팀도 한때 원근에 이름났었다.

1935~1937년 괴뢰만주국 자전거 2만미터 경기에서 우승을 한 연길시의 김명기 선수(오른쪽)

1930년대 들어서면서 연변의 체육운동은 새로운 영마루에 올라섰다. 처음으로 全滿 간도성축국팀이 나왔다.《우리는 조선사람이다》,《어디가나 1등을 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의 좌우명이었고 힘의 원천이었다. 1935년 처음으로 있은 전만(全滿)체육대회에서 그들은 축구경기에서 우승을 따내었다. 1936년 7월 11일에 있은 全滿체육대회 축구경기에서《間島省》(연변)의 조선인 건아들로 무어진 축구팀은 불패의 기록으로 재차 우승의 보좌에 올랐다. 1937년 8월 4일, 全滿도시축구대항경기가 新京(長春)에서 열렸는데 연변의 축구팀은 1938년 8월, 전만 중학생축구대회에서 龍井東興中學이 우승을 하고 1939년 7월, 제 2회 중등전문학교축구대회에서 延吉國民학교가 우승을 하였다.

1935년의 吉林~長春도로장거리경기에서 光明中學의 이진기, 大成中學의 김중진, 東興中學의 장연구 등이 명성을 떨쳤다.

1935년 9월, 延吉에서 진행한 체육경기에서 강영필이 씨름에서 우승을, 12,8m 높이의 그네뛰기에서 김봉순이 우승을 하였다.

1937년 2월, 간도빙상대회에서 龍井의 김장현이 500m경기에서 우승을, 恩眞中學의 오기섭이 1,500m경기에서 우승을, 10,000m경기에서 오기섭이 또 우승을 하였다.

1935~1939년에 奉天국제경기장에서 해마다 10월경에 全滿자전거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奉天의 박창권 등은 번마다 여러경기 종목에서 우승컵과 선수권을 차지하였다.

1938년 日鮮滿동기스케이트대회 1만메가 경기에서 조선인 박윤철이 1등을 하였다. (무순 만철직원)

1941년, 全滿 제 10차 체육대회 자전거 경기에서 간도의 이광웅 등이 4개 종목에서 우승을, 1942년 11회 체육대회 자전거 경기에서도 일본선수를 눌러버렸다.

1940년 2월에 있은 吉林省 빙산대회에 이철호가 5,000m경기에서 우승을, 지원백이 500m경기에서 2등을 하였다. 그해 日本에서 진행된 빙상대회에서 龍井光明中學의 이철호가 1,500m경기에서 3등을 하였다. 그해 7월에 全滿체육대회에서 龍井光明中學이 축구에서 1등을 하였다.

1942년 7월, 全滿선수권대회에서 龍井恩眞中學이 中學部가 우승을, 龍井永新中學 출신인 박노선은 一般축구경기에서 속도가 빠르고 기운이 좋아《노새》라는 별명을 얻었다.

해방 전 연변의 조선건아들로 무어진 축구팀은 10여차례 경기에서 9차례나 우승을 하였다. 전만축구경기에는 新京, 安東(丹東), 牡丹江, 間島(연변), 奉天(심양), 吉林 등 지구의 명장들이 많았다.

## 3. 광복 직후 체육

해방 직후 학교 교육에서는 학교마다 藝能, 體育 과목을 설치하였다.

解放초기에 연변에 蔡松哲, 崔東振, 韓洙殷, 通化에 허성일, 開原에 조명섭, 黑龍江省에 朴東奎(후에 흑룡강성 체육과학연구소장), 송원하, 이창섭 등 전임체육교원이 있어 체육학과를 교수하면서 陸上운동과 축구를 위주로 한 각종 근대체육이 학교에서 재빨리 보급되고 발전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연변에는 28개소의 공립중학교와 민영학교가 있었고 학생은 10,813명이었다.



군중체육운동도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1946년《8 · 15》에는 渾春에서 현경기대회를 가졌으며 1948년에는 안도현 명월구에서 전 연변축구대회가 열렸다. 1949년에 제 2회 해방경축 연변체육대회가 연길에서 中學部와 社會部가 참가한 축구, 농구, 배구 등 경기가 열리었다. 1949년 대회에서 씨름 1등은 박삼세(안도현), 그네뛰기 1등은 임길남(연길시).

당의 일련의 교육방침의 시달과 함께 1947년도에 通化와 黑龍江省의 각 지구의 학교들에서도 체육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 4. 건국 후 대중적 체육운동의 전개

건국 직후 中華全國체육총회준비회의가 있은 후 學生, 노동자, 농민, 병사, 시민, 사회단체와 기관에 이르기까지 체육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50년 8월 18일에 연변체육협회 준비위원회가 성립되고 1951년에 延邊師範學校에 體育班이 설치되었다.

1950년 8월에 제 5회 종합적인 운동대회가 개최되었으며 1950년 단오절에 심양시 제 1회 조선민족운동회가 열렸다. 1949년 9월에 할빈에서 松江省조선민족축구대회를 열었다. 1950년 10월 2일에는 제 1회 東北人民체육검정경기가 심양에서 열렸다. 당시 동북의 6개 성, 6개 시와 4개 계통에서 선수단을 파견하였다. 1만메터 경기에 윤창록(길림성)이 1등을, 지영애, 김순자, 정훈자 등의 연변팀이 여자배구 1등을 하였다. 이들은 50년대에 국가녀자팀의 主力으로 활약하였다.

# 제6절 개혁 개방 후 문화, 민족생활의 새 면모

## 1. 延邊文學藝術界聯合會

1953년 7월에 延邊文學藝術界聯合會(간칭:《文聯》)가 나왔다.

副主任 정길운, 김학철. 1953~1961년 4월에《延邊文藝》,《長白山》등 조선문文藝월간잡지를 창간하여 文學, 音樂, 美術, 무용, 연극과 구연, 촬영 등 창작성과를 교류하였다. 이것은 연변과 東北三省 조선족 대중의 환영을 받았다.

中國作家協會 延邊分會는 1956년 8월에 나왔다. 잡지《아리랑》을 창간. 1959년에 음악, 미술, 연극, 촬영 등 각 협회가 성립되었다.

당대에 이르러 우리말 문학잡지로는 북경에《민족문학》, 연변에《연변문학》,《아리랑》, 장춘에《장백산》, 흑룡강에《송화강》,《도라지》등이 있다. 그리고 부정기간물로《두만강》, 문학이론간물《문학과 예술》, 종합지《예술세계》가 있다. 장편소설로는 김학철의《해란강아 말하라!》(1, 2, 3), 리근전의《범바위》,《청산의 눈물》,《고난의 년대》(상, 하), 리원길의《설야》,《춘정》, 최홍일의《눈물젖은 두만강》(상, 하), 중편소설로《규중비사》(김용식), 장편소설《아리랑 열 두 고개》(유원무), 그리고《김창걸소설집》,《김학철소설집》,《격정시대》(김학철) 등이 출간. 시집으로《새별전》(김철),《장백산아 이야기하라》(김성휘),《이욱시집》,《이상각시집》등. 각본으로《장백의 아들》(황봉용 등),《붉은 자매》. 아동문학으로 소화극《푸른 언덕》, 서사시《진달래》, 중편소설《숲속의 우등불》, 동화《부엉이와 고양이》등이 있다.



### 李旭(1907~1984)

원명 : 李章源. 조선예계계몽운동과 서유럽자본주의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창작을 시작하였다. 17세 때《생명의 예찬》을《간도일보》에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시창작생애의 시작이었다.

그는 진보적 신문《민성보》기자,《조선일보》의 간도특파기자로 있으면서 소설, 시 등을 발표하여 입체적 자세를 정립하였다.

그의 작품집으로《북두성》,《北陸의 서정》,《고향사람들》,《연변의 노래》(한문),《이욱시선집》등 서정시집과 장시집이 있다.

그는 서정시, 서정서사시, 한문시 뿐만 아니라 구전문학도 깊이 연구하였다. 그의 시는 역사적 제재에 대한 각별한 흥취, 심오한 사상과 랑만에 바탕을 둔 거인적 형상창조, 선명한 민족적 색채 등 특색이 있다.

### 金學鐵(1916~2002)

원명 : 홍성걸, 그는 해방 전 중국 관내 조선의용군전사로 抗日무장투쟁을 한 투사이며 저명한 소설가이다.

김학철은 남경에서 조선민족혁명당에 가입하고 1937년 8월에 중앙육군군관학교에서 공부한 후 무한에서 조선의용군에 참가하였다. 1940년에 中共당에 가입하였고 그 후 태항산으로 전이하여 팔로군에 들어갔다. 어려서부터 조선고전작품과 서양문학작품을 탐독한 그는 문학기량을 과시하여 시, 극 작품을 창작하였다. 1941년 12월, 태항산지구 胡家庄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결심하였지만 불행히 체포되었다. 석가장 유치장에서 옥고를 겪다가 일본에 압송되었다. 해방이 되어 1945년 10월에야 석방되었다. 부상당한

다리는 감옥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절단하게 되어 불구자로 되게 되었다. 1946년 10월에 창작활동을 본격으로 벌렸다. 1946년 11월에는 평양에 와서 신문사의 기자, 주필로 있으면서 소설창작에 진력하였다. 1951년 2월에 중국에 들어와 중앙문학연구소에서 학습하고 1952년 10월에는 연길에 이주하게 되었다. 선후로 文聯主席, 전직작가로 있으면서 창작의 앙양기를 맞이하였다.

그는 《새집드는 날》, 《뿌리 박은 터》, 《내선견습공》 등 단편소설과 장편소설 《해란강아 말하라!》, 장편실화집 《격정시대》 등을 내놓았다. 그의 작품은 생활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는 생활의 밑층에 있는 인간들의 정신적 미를 발굴하였고 소설은 사건의 얽음새가 간결간결하고 극성의 특성, 유모어적 특성이 있다.

任曉遠(1926~) 본명 : 임호

해방 직후 시단에 등단한 서정시인이다. 《이 손에 총을 주소》, 《새 국기 밑에서》, 《귀분이》, 《요 살뜰한 처녀야》 등 서정시와 《해란강》, 《연변타령》 등 가사를 내놓은 서정의 시인이요, 정열의 시인이다. 《진달래》, 《인생살이》, 《장백산시초》(한문) 등 작품집이 있다.

黃鳳龍(1925~)

일본에서 고학하는 사이에 18, 19세기 유럽의 저명한 작자의 작품과 전기를 탐독하면서 문학에 뜻을 두게 되었다. 단막극 《새각시》는 황봉룡의 극작가로서의 자세를 정립한 뚜렷한 이정비로 된다.

1959년에 박영일과 합작하여 장막극 《장백의 아들》을 무대에 올렸는데 20여 년 동안 무려 384차 공연하여 33만여명의 관중을 가지게 되었다. 이 밖에 《광활한 천지에서》, 《산촌의 소나기》, 《예조리 령감》 등 작품을 내놓았다.



金哲(1932~)

원명 : 김봉섭, 지원군으로 참전, 신문사 기자, 시집 《동틀 무렵》 등 20권을 펴냈다.

탑은
왜
서고만 있소?

죽어서도
휘지 않는 넋이로기에
묻힌 뼈 그대로기에
일어선거지

서정시 《탑》의 전문이다. 장편서사시 《새별전》은 그의 획기적 거작이요, 조선족문학이 거둔 대표적인 작품이다.

金成徽(1933~1990)

시집 《나리꽃 피였네》, 《장백산아 이야기하라》 등과 《가사창작지식》 등 저서가 있다.

시내물의 흐름을 찬히 보아라
천리만리 먼먼 길도 자신만만타
흐르고 흐르고 내처 흐르며
한평생 말쑥하게 가는 나그네

서정시 《시내물》의 한 단락이다. 당대 인간의 드팀없는 이념, 의지, 지혜 그리고 인생과 사회와 시대에 대한 사색이 자리잡고 있다. 장편서사시 《장백산아 이야기하라》는 민족특색이 짙은 거작이다.

李根全(1929~)

본명 : 李根革, 소설가이다. 중편소설 《호랑이》, 장편소설 《고난의 년대》(상, 하), 《청산의 눈물》은 그의 대표작이다. 《고난의 년대》는 우리 민족의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묘사한 우리 민족의 고난사이다.

당대의 음악, 미술 정황을 살펴보면, 《文聯》이 성립된 후 가곡집 《고향산 기슭에서》, 《도라지꽃》, 《고속도로 앞으로》, 《장백의 진달래》, 《내고향 오솔길》이 나왔는데 많은 가곡이 조선민족인민들 속에서 애창되고 있다. 교성곡 《장백의 노래》(김철 작사, 장진욱 작곡), 방초선이 부른 노래 《처녀의 노래》(최정연 작사, 정진옥 작곡)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 6차 청년축전에서 각각 은실상을 받았다.

朴佑(1927~)는 40여년 간 예술분야에서 배우생활, 작곡지휘를 통해 우리 민족음악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한 음악가이다. 《좋은 종자 가려내세》, 《모아산 고개》, 《원앙새 한쌍》 등 수많은 가곡을 펴내놓았다.

유화 《노인독보조》(석희만)는 전국미술전람회에 전시되었다. 유화《장백의 호랑이》, 《물》, 국화 《백두봉에 봄이 왔네》는 동북 3성미술전람회에서 전시되어 호평을 받았다. 유화 《할머니》(김일용)는 전국소수민족미술전람회에서 1등상을 탔다. 《그네》, 《봄노래》는 국제촬영전람에 참가했다. 그리고 《서리맞은 단풍잎 봄꽃보다 붉어라》, 《널뛰기》 등은 전국촬영회에 참가하였다. 무용창작에는 《조선족무용기본동작》, 《농악무》 등 조선문 저작이 있다. 황범송, 남해룡, 정희주의 예술사진이 해외에서 전시되었다.

## 2. 예술공연단체

연변가무단은 1953년에 정식으로 세워졌다. 가무단에서 다채로운 유산을 계승하여 농악무, 장고춤, 물동이춤, 부채춤 등을 공연하였다. 중앙가무단에서 이런



민족가무를 가지고 출국공연을 하여 아세아, 유럽, 아메리카 등 나라, 관중의 절찬을 받았다. 무용 《양돈처녀》는 루마니아에서 공연하여 환영을 받았다. 무용《논물관리원》, 음악 《꽃피는 우리 살림》은 국경 30주년 전국공연에서 1등상을 탔다. 가무극 《아리랑》, 무극 《춘향전》 등은 수도무대를 들썽하게 한 우수한 종목으로서 모두 전국 우수상을 받았다. 연변가무단은 또 조선, 일본, 캄보디아, 뉴질랜드, 미국, 에티오피아 등 많은 나라의 원수, 대표단 및 친선인사들을 위하여 특별공연을 하였다.

최미선(1934~)은 40여년의 출중한 예술표현으로 우리 민족 무용화원에 아름답게 수놓았다. 수차 나라를 대표하여 세계무대에서 재질을 과시하였다.

리록순(1938~)는 뛰어난 독무가, 무용안무가이다. 100여개의 무용종목에 출연하고 10여기 무용작품을 안무. 이론저작 《장고춤》을 내놓았다. 알제리아, 벨지크, 소련 등 8개 나라에서 친선공연. 그의 춤은 농후한 민족풍격과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 저명한 무용예술가이다.

최옥주(1935~)는 뛰어난 무용배우, 안무가이다. 《이난박춤》, 《왕가물과 싸우는 처녀들》 등은 기념비적 작품이다. 세계 여러나라에 그 빛을 발휘하고 있다.

연변연극단은 1956년 1월에 설립되었다. 그들은 《심청전》, 《춘향전》, 《장백의 아들》, 《붉은 바위》, 《청춘의 노래》, 《남해장정》 등 많은 극작품을 공연하였는데 고전연극 《춘향전》은 1956년에 전국 제 1차 연극경연에서 공연 1등상을 탔다. 《장백의 아들》은 항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우수작이다. 《털없는 개》는 수도무대에서까지 조선말로 공연하였는데 공연차수는 미증유의 기록을 창조하였다. 예술영화 《첫봄》(최정연 작), 대형기록영화 《연변의 봄》이 나온 뒤를 이어 많은 조선족 영화작품이 나왔다.

연변화극단에서는 민족특색이 짙은 《연변고서》, 《삼노인》, 《연변병창》, 《만담》, 《재담》 등도 창작하여 공연하였다.

최수봉(1921년~)은 우수한 구연문학가, 배우, 연출가이다. 구연문학과 구연예술의 계승발전에서 선구자의 역할을 하였다. 재담《해산중 출입금지》등 작품이 있다.

1956년 이후에 각 현, 시에서 선후로 문공단을 세웠다. 1980년에는 자치주에 1개 가무단, 2개 평극단, 한 개 연극단, 5개의 문공단이 있게 되었다.

연변예술학교는 1957년 10월에 설립되었는데 그때 무용, 성악, 기악, 미술 등 전업이 설립되었다. 후에 연변대학 예술학원으로 승격하였다.

강찬혁(1924년~)은 중국조선민족촬영의 창시자의 한 사람이며 이름난 촬영가이다.《어하둥실 좋을시구》,《늙은 양주 이어달리기》등 우수한 예술촬영작품이 있다.

황범송(1930~), 백두산 천지 촬영, 항일 전적지 현지 답사 촬영에서 큰 기여를 한 촬영자로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 3. 신문과 간행물

1955년 1월 1일부터《東北조선인민보》는《延邊日報》로 되었다.

1957년 7월에 조선문《소년아동보》를 창간하였다.

1947년 3월에 연길시에 연변교육출판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연변 및 동북3성 조선족중소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교수참고서 등을 출판하였다. 1952년 교육출판사와 인민출판사로 나뉘어졌다. 인민출판사에서는 1950년대부터《시사편람》,《소년아동》,《소학교육》,《대중과학》,《연변청년》,《연변위생》,《연변여성》,《교육통신》등 조선문정기간행물을 출판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동북3성 조선민족을 대상하여《중국조선족교육》,《중국조선어문》등으로 이름을 고치었다.

북경에는 민족출판사가 세워지고 동북의 요녕성과 흑용강성에는 조선민족출



판사가 세워졌으며 연변교육출판사는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로 탈바꿈하였다. 요녕과 흑용강성에는《요녕조선문보》,《흑룡강조선문보》가 나오고 길림성에는 조선문으로《길림신문》이 발간되고 있다.

소년아동물로는《시내물》(지금은《별나라》로 고침),《소년과학》, 문예정기간행물은《연변문학》,《아리랑》,《두만강》,《장백산》,《송화강》,《도라지》등이 나오고 있다. 가곡집《봄노래》(지금은《연변음악》으로 고침)가 나오고 있다.

## 4. 방송 텔레비전

1949년에 연변인민방송국이 정식으로 설립하고 조선말방송을 시작하였다. 1956년에 중문방송을 설치하였는데 1969년 4월부터 조선어, 중어를 갈라 방송하였다. 1978년 10월에 연변방송예술단이 세워졌다.

자치주내에는 또 8개소의 무선중계방송소가 세워져 지방들에서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다.

1951년부터 자치주내에서 유선방송이 시작되었다.

1974년 10월 1일, 연변텔레비전방송국이 설립되었다. 이것은 소수민족지구에서 첫 地區級텔레비전방송국이다. 주내 10곳에 텔레비전중계방송소를 설치하였다. 1981년 연길시 조선민족예술단이, 1982년에 흑용강성 목단강시 조선민족가무단이 성립되었다.

흑용강성의 牡丹江, 穆稜河, 탕왕하, 왜긍하, 나림하 등 流城에 위치한 53개 현, 시에는 45만 2,000여명의 우리 민족이 집거하거나 산재해 살고 있다. 이로써 1959년에 黑龍江人民방송국에서는 조선어 프로그램을 증설하였고 가요, 라디오드라마, 방송소설, 회상기, 민간이야기, 재담 등을 방송하고 있다.

(집필자 : 남희풍, 수개자 : 고영일)